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사회 네트워크 분석 -인천지역평생학습축제 사업을 중심으로*

문정수**

이희수***

■ 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평생교육추진체제의 네트워크 구성과 작동에서 ‘누가, 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한 행위자들은 누구이며, 이들 행위자들 간 네트워크의 상호작용과 관계구조가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네트워크의 내부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례 연구로서 인천지역평생학습축제 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행위자, 상호작용과 관계구조 등 3가지 구성요소를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NetMiner 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행위자간의 관계구조를 시각화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자는 공공기관들로 나타났다. 둘째,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으로서 연계유형은 주체기관간 다소 수평적이고, 협력적이며 보완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다. 셋째, 관계구조로서 전체 네트워크 행위자간의 강도(밀도)와 빈도가 전반적으로 낮을수록 네트워크 중심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활한 관계구조를 위해서는 허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지역평생교육진흥원의 효율적 네트워크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지역평생교육추진체제, 행위자, 상호작용, 관계구조, 사회 네트워크 분석

* 본 논문은 문정수의 박사학위논문인 “지역평생교육추진체제의 사회 네트워크 분석(2010)”의 일부를 수정·재구성한 것임.

** 인천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e-mail:mk125@hanmail.net)

*** 중앙대학교 글로벌 인적자원개발대학원 원장 및 교육학과 교수(e-mail: heesu@cau.ac.kr)

I. 서론

최근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Castells, 1996)라는 말이 광범위하게 회자되고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조직 형태는 시장형태도, 위계 형태도 아닌 네트워크 형태이다.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공통적으로 수평적 교환 형태, 자원의 상호의존적 흐름, 호혜적 의사소통 라인을 공유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이희수 외, 2005). 이러한 네트워크 연구에 대한 필요성은 평생학습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Illich(1984)가 탈학교사회의 대안으로서 제시한 학습망에서 볼 수 있듯이 네트워크에 기반된 사회학습망 구축 방안이 시도되고 있다(강순희, 박성재, 장원섭, 2003). 평생학습 자체가 네트워킹의 연속이다. 네트워크 안에는 다양한 기관과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네트워크 구조는 개인 행동과 시스템 전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네트워크는 구성요소들의 활동과 결정에 따라 자체 진화하고 변화해 가기 때문에 역동적인 존재이다.

평생교육추진체제의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 이유는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관계 형성을 통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학습자들의 복합적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때문이었다. 평생교육의 이념인 학습의 장과 시간의 통합화, 자원의 공유를 통한 학습의 효율화, 교육자원의 연계 활용을 통한 최상의 교육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바로 네트워크 평생학습 사회이다(한승희, 2001). 평생교육 네트워크는 기관 간의 연계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의 교류, 시설 자원의 교류, 정보의 교류, 사업 네트워크 등 교육 자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의미한다(이희수 외, 2005). 또한, 평생교육 네트워크는 '기관 간 상호 교환 활동 및 공동 활동'이다(정연순, 2006). 이는 평생교육에서 기관 네트워크는 주로 주민의 학습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지원체제'로서 강조되어 왔다. 평생학습에서 네트워크가 지원체제로서 주목받는 것은 단순히 다양한 자원이 사람들의 성장을 위해 협력한다는 차원을 넘어 네트워크라는 형태 자체가 제대로 구축될 때 평생학습지원체제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김경애 외, 2007:119).

그동안 평생교육 기관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기능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김신일, 2004; 양병찬, 2000; 양병찬, 2006; 이상일, 1999; 이희수 외, 2000; 이희수 외, 2005; 이희수, 2006; 한승희 외, 2007; 한준상, 1997). 학자들 간의 개념과 강조점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들 간의 공통분모는 학습자의 입정보다는 주로 평생교육기관의 입장에서 네트워크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네트워크가 어떠한 흐름 속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실증적인 기관 네트워크 연구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의 경험을 정리하고 성찰하는 연구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연순(2006), 장원섭(2006), 이지혜 외(2007), 김경애 외(2007), 조영하(2009), 현영섭, 조대연(2009) 등의 네트워크 연구에서는 기존의 평생교육 네트워크 개념을 보다 넓히고, 그 내적 역동성이라는 시각을 갖고 지역 네트워크가 발전하는 실제 과정을 세부적으로 밝혀 나가며 지역과 함께 발전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평생교육의 구심체로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평생교육 현장에서의 네트워크는 지역의 평생교육추진기구를 중심으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지역평생교육 네트워크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법정 기구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현재 지역평생교육진흥원)이다. (구)평생교육법 제14조에 의하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평생교육 단체 및 시설의 상호 연계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평생교육추진기구로서 중앙의 평생교육센터(현재 평생교육진흥원)와 지역 내 다양한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들 간의 평생교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계·구축하기 위하여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평생교육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였는가를 실증적으로 밝혀볼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 현장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였지만, 막상 그것이 실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일천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네트워크의 구성과 작동에서 ‘누가, 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한 행위자들은 누구이며, 행위자들 간 네트워크의 상호작용과 관계구조가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네트워크의 내부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중심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관은 어떠한 기관이며, 중심적인 영향력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앞으로 지역 내 평생교육추진체제가 기존의 단일방식에서 복수방식으로 변화됨에 따라 향후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행위자 간의 갈등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시각과 활성화 방안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 시점에서 시의성을 지닌 것으로 함축적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지역평생교육진흥원의 효율적 네트워크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한 주요 행위자들은 누구인가? 인천평생학습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행위자들의 수와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네트워크 행위자들 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네트워크에 참여한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네트워크에 참여한 행위자간의 연계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위자간의

1) 2000년 3월에 평생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추진체제 기구로서 중앙평생교육센터(현재 평생교육진흥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등이 있으며, 또한 이들 기관들과 관련하여 평생교육협의회가 설치되어 평생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 조정 기구로서 의무화하고 있다.

빈도와 상호 연계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상호작용에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셋째, 사업 네트워크에 참여한 행위자간의 관계구조는 어떠한가? 네트워크에 참여한 행위자간의 관계구조를 통하여 관계의 강도와 중심성 순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접근했는지, 네트워크상에서의 중심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관은 어디인지 네트워크의 관계구조를 파악하여 내부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네트워크의 개념과 구성요소

네트워크 연결의 시대에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의 문제가 모두 네트워크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는 규정된 범위의 사람, 대상 또는 사건들을 연결하는 특정유형으로의 관계라고 정의된다(박용관, 1997). 네트워크라는 개념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현 사회의 흐름 또는 특성을 지향하는 용어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라는 용어가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의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행정학에서는 거버넌스를, 사회학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평생교육에서는 파트너십을, IT 및 경영에서는 네트워크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이희수, 2006). 특히 네트워크는 거버넌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이희수 외, 2005). 사회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를 '규정된 범위의 사람, 대상, 또는 사건들을 연결하는 특정유형의 관계'로 정의하였다(Knoke & Kuklinski, 1992: 175). 평생교육과 인접한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도 이해와 실행의 개념적, 실증적 도구로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인적자원개발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일고 있다(Storberg-Walker & Gubbins, 2007). 즉 사회 네트워크 관점에서 인적자원개발이 적절한 네트워크 구조들과 실행을 위한 적절한 기회와 조건들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OECD(2003: 42)는 네트워크를 '참여자들 간의 공동의 이해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연계의 형식'이라고 보면서 연계는 다수의 참여자들 간의 소통, 상호작용, 협력을 동반하는 것으로 역동적이고 가변적이라고 지적하였다(OECD, 2003; 이희수 외, 2005; 정연순, 2006).

이상과 같이 네트워크의 개념을 종합해 보면, 네트워크는 '기관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연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현장에서 네트워크에 참여한 행위자들 간의 구체적인 상호작용과 관계방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접근해 보았다.

네트워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분석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네트워크의 구성요소는 무엇보다 요소들 간의 관계가 개인행동과 시스템 전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구성요소들의 활동과 결정에 따라 네트워크 자체도 진화하고 변화해 가기 때문에 역동적인 존재이다(Watts, 2003).

즉 네트워크의 구성요소를 다양한 차원에서 해부함으로써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여겨졌던 네트워크의 구조 및 과정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다. Marsh와 Rhodes(1992)는 영국 정부정책에 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4가지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첫째 구성원으로 정책 공동체에서는 참여자의 수가 극히 제한적이다. 둘째 통합성으로 정책공동체에서는 정부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이 정책과정에 계속적으로 참여하므로 상호작용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정도도 깊다. 이슈 네트워크의 경우는 상호작용의 빈도가 낮고 그 정도와 중요성, 대상이 수시로 변화한다. 셋째, 자원배분이다. 정책공동체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자원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권력으로서 정책 공동체에서는 참여집단들이 어느 정도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슈 네트워크에서는 자원의 보유가 균등하지 않으며 따라서 권력도 불균등하다. Marsh와 Rhodes가 주장한 대로 정책 공동체와 이슈 네트워크는 정책 네트워크의 연속선상에서 양쪽극단에 위치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책현실에서의 정책 네트워크는 정책 공동체 혹은 이슈 네트워크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며 상대적으로 어떤 특징을 더 많이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분해야 할 것이다.

이상 국내외의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정책 영역 측면에서 네트워크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연구된 논문들을 다음 <표 1>과 같이 분류, 정리하였다. 이들 국내외 학자들의 주요 공통점은 네트워크를 유형화하여 조직간 관계 구조를 제시하였고 제시한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경험적이고 기술적인 연구를 시도한 것이다.

<표 1> 네트워크의 구성요소

연구자(년도)	네트워크의 구성요소
Döhler(1991)	구조, 행위자의 배열, 통치, 상호작용의 유형
Marin & Mayniz(1991)	정책영역, 정책행위자, 조직 간의 관계구조, 집합적 행동, 권력관계, 전략적 상호작용
Jordon & Schubert(1989)	참여자 수, 네트워크 안정성, 정책연계망
Waarden(1992)	행위자, 기능, 구조, 제도화, 행동규칙, 권력관계, 행위자 전략
Marsh & Rhodes(1992)	구성원 통합, 자원, 권력
Yisahi(1992)	철의 삼각, 철의 듀엣, 이슈네트워크, 정책공동체, 정책기관
이순호(2000)	참여자의 수, 유형, 연계구조, 상호작용, 정책행위자 관계의 제도화
배응환(2000)	정책행위자, 정책이익, 권력관계, 연결통로

연구자(년도)	네트워크의 구성요소
강은숙(2001)	구성원의 수, 통합성 정도, 행위주체 간 권력비교, 네트워크 유형, 행위주체간 상호작용, 정책변동규모
김희연(2002)	네트워크 내용, 상호호혜성, 상호작용의 빈도, 네트워크 지속성
김경주(2002)	정책행위자, 정책행위자 상호작용, 정책네트워크 관계구조
방민석(2003)	정책행위자, 관계구조, 상호작용
신영균(2004)	행위자의 수, 유형, 기능, 상호작용의 관행, 권력분포
유병권(2008)	정책행위자, 권력, 상호작용

이처럼 네트워크 구성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네트워크 이론과 여러 연구자들이 제시한 네트워크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핵심적인 구성요소는 행위자, 행위자간의 상호작용 네트워크 연계구조이다.

첫째,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행위자이다. 행위자란 단일한 방법으로 자신(조직)의 목표 또는 이해를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실체를 의미한다(김선경, 양재대, 원준연, 2003: 255). 행위자에 대한 분석의 핵심은 참여자의 수와 성격이다. 얼마나 많은 조직들이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성격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김옥일, 2008). 이를 통해 이들의 네트워크 참여와 배제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상호작용이다. 네트워크의 행위자들은 상호작용을 한다. 행위자들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관련된 행위자들의 신념, 욕구, 자원 및 전략을 교환하게 된다(이순호, 2000: 54). 즉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상호간의 이해와 관심에 대해 알게 되며 서로간의 신뢰와 이해력을 넓히게 된다.

셋째, 관계구조이다. 네트워크의 관계구조란 행위자들 간의 관계패턴을 의미하며 상호작용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Waarden(1992: 34)는 관계구조를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의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거래관계의 제도화된 통로의 형성을 관계구조의 주요특징으로 파악하였고, 하위변수로서 규모, 경제, 참여방식의 유형, 상호작용의 빈도와 지속성, 조정관계, 관계의 속성, 권한 집중의 정도를 언급했다. 즉 관계구조는 상호작용과 연계양식이 이루어질 때 만들어지는 틀이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은 사회적 현상을 한 행위자나 조직을 단위로 분석하기보다는 이들 간에 맺어지는 관계로부터 나타나는 출현적 속성을 강조하고 그에 따라 관계의 양상을 분석한다는 점에

2) 네트워크 구조는 행위자를 제약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등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네트워크 구조는 행위자의 역할과 논의할 이슈를 규정하고, 규칙을 가지며, 네트워크를 유지하려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행위자는 구조의 단순한 종속물이 아니고, 구조가 만들어내는 제약이나 기회를 해석하고 협상하며, 재구조화하고자 한다(Marsh, Richard&Smith, 2001: 243).

서 행위자 중심 혹은 변수 중심의 접근법과 구별 된다.³⁾ 조직화된 사회 네트워크 분석은 하나의 정보 흐름을 찾아가기 위한 '길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길목을 잘 짜여진 사회 네트워크 분석의 시각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그 흐름의 파악은 네트워크 속에서 더욱 적극적이며 효과적인 시각적 연결성을 가지며 하나의 모티브적 성격으로 정보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네트워크 관점의 핵심은 사회 행위자들 간의 관계로부터 패턴을 찾아내고 그것이 갖는 함의를 밝혀내는 데에 있다(Wasserman & Faust, 1994). 개별행위자의 행태, 태도, 신념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서, 사회 주체가 다른 주체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하는 구조와 환경을 포괄하여 조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네트워크 분석의 특징이다(Wellman, 1988).

국내외 학자들이 제시한 네트워크 특성과 변수들의 공통점을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네트워크의 크기, 방향성, 접근성, 안정성, 접촉빈도, 중심성, 관계적 요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네트워크의 특성과 변수들의 내용을 재정리하여 관계적 특성 변수들을 중심으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네트워크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계구조는 행위자 간의 관계의 밀도와 중심성 등의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표 2>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선행연구	구조적 특성의 내용
Mitchell(1996)	방향성, 접근성, 네트워크 밀도, 범위
Van de Ven & Ferry(1980)	네트워크 흐름의 방향, 빈도, 공식화 정도, 구조적 복잡성, 밀도
Isreal & Rounds(1987)	네트워크 규모, 네트워크 밀도
El-Bassel, Chen & Cooper(1998)	접촉빈도, 동질성, 근접성, 다양성, 네트워크 규모, 네트워크 밀도
박경숙(1996)	연계기관 존재, 개수, 거리
강창현(2001)	밀도, 중심성
유태균, 김자옥(2001)	관계망 밀도, 중심성
김희연, 한인숙(2002)	방향성, 조직 간 거리 네트워크 확장정도

2. 평생교육추진체제 네트워크의 개념과 구성요소

최근 들어 평생교육추진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연계·

3) 네트워크 분석은 어떤 행위자가 수많은 다른 행위자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체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과 사회체제는 구체적 실체들 간의 관계의 패턴의 규칙성(regulation in the patterns of relation of relations among concrete entities)을 가진 다양한 차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회적 형태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남궁근, 1998: 178).

협력·제휴를 의미하는 네트워크라는 용어일 것이다. 평생교육의 이념인 학습의 장과 시간의 통합화, 자원의 공유를 통한 효율화, 교육자원의 연계 활용을 통한 최상의 교육 서비스제공 시스템이 바로 네트워크 평생학습사회이다. 네트워크는 기관 간의 연계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의 교류, 시설 자원의 교류, 정보의 교류, 사업 네트워크, 전국적 네트워크 등 교육자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의미한다(이희수 외, 2000).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는 네트워킹 학습사회 실현의 초석이 되며 평생교육기관의 연계를 지역평생학습 공동체와 서로 연계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가 실현되는 것이다. 평생교육분야에서도 네트워크의 특성을 밝히려는 노력이 간헐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OECD(2003: 42)에서는 네트워크를 '공동의 이해와 목적을 추구하면서 정교하게 수립되고 작동되는 연계의 형식'이라고 보면서, 사회 각 부분들이 개방된 네트워크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한승희 외(2007)는 네트워크를 ① 해당 영역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목표와 전략, ② 그들 간의 갈등 및 협력 등의 상호작용, ③ 위 두 요소에 영향을 주고받는 연계 구조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평생교육차원에서의 네트워크란 '일정한 구조'를 전제로 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자원망, 자료망, 조직망을 뜻한다. 네트워크는 평생교육의 본령이기도 하다. 평생교육 네트워크는 기관 간의 연계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인적자원의 교류, 시설 자원의 교류, 정보의 교류, 사업 네트워크 등 교육 자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의미한다(이희수 외, 2005). 네트워크를 시스템이기도 하다. 양병찬(2000: 42~46)은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지역의 평생교육관련 기관, 시설, 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학습 장소, 학습 기회, 학습 자원 등의 연계·협력·제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때, 핵심은 지역 내 산재한 교육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교환활동과 공동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정연순(2006)은 주체들이 공동의 목적이나 가치를 추구할 뿐 아니라 서로에게 유용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때 네트워크가 성립가능하다고 하였다. 김수구(2006)는 지역 공동체 측면에서 네트워크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공동으로 토론하고 행동'함으로써 지역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성립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평생교육에서의 네트워크란 '평생교육 실천영역에서 다양한 평생교육 기관들 간의 협력적 활동과 상호작용은 물론 공동의 평생교육의 목적을 도출하고 이를 함께 실현해 가는 과정이자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추진체제 관점에서 상호 작용하는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구성요소들은 크게 체제와 교환의 개념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여기서 체제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체로서의 세트를, 교환은 두 가지 이상의 개체 간 협력과 자원의 교류와 공유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에 지역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주체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요청된다.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의 의미는 지역 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교류, 활용함으로써 교육에 투입되는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협력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양홍권, 2007).

이희수(2005)는 네트워크의 성공적 조건으로서 연계·협력하고자 하는 복수의 주체, 교환과 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네트워크의 기반, 위계적 조직에서 수평적 조직으로의 사회 풍토 변화, 쌍방향성과 호혜성 존중 그리고 정보를 수집·제공·교환하고 수많은 교육기관들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개소를 제시하였다. 양병찬(2006)은 평생교육추진체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성요소로서 노드 간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 운영과 실행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목적달성도는 또 다른 공동 목적 발생시 참여요소 간 연계의 내용을 조절하며 실행력을 개선하는 기준이 된다고 제시하고 있었다. 井上講四·手打明敏(1989)의 모형을 살펴보면, 지역평생교육체제의 네트워크 모형을 제시할 때 크게 인적자원, 사업 네트워크, 정보의 네트워크, 물적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였으며 국내 연구자들이 주로 인용⁴⁾하고 있는 모형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환경요인은 네트워크화의 외곽을 형성하며, 시설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체제 네트워크의 구성요소로서 정보 네트워크, 사업 네트워크, 인재 네트워크, 교·공간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평생학습 네트워크 모델의 비전 또는 전체상을 제시하고 있었다(이희수 외, 2005).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지역평생교육추진체제 네트워크의 구성요소를 학습자의 관점보다는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의 측면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사례분석 대상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이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평생교육 네트워크의 대표적 기관이다. 이를 통해 전국 시도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네트워크 특성과 수준을 예측해 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인천의 경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이다. 북구도서관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서 2000년도에 처음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해 오고 있으며, 10년간 사업 운영의 지속성과 연속성으로 네트워크 수준을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데 적합한 기관이라고 판단된다.

연구대상으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추진했던 사업 중 '평생학습축제 사업'을 중심으

4) 이희수 외(2001, 2005), 양병찬(2006), 한승희 외(2007)의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평생교육추진체제의 유형을 구성요소를 크게 4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로 네트워크 분석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선정할 이유는 기관 간 네트워크 협력을 필요로 하며 다양한 기관들이 반드시 연계해야만 하는 사업이라는 점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비교 사례로서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9년도 한 해 동안 발생했던 관련 내부분서, 통계 자료 및 발간자료 등 실증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관계 내용을 조사하였다. 또한 조사자료 수집은 설문조사 방법이 주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분석대상 기관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의 평생교육진흥원, 인천시교육청, 남구청, 부평구청, 연수구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동구청소년수련관, 남부교육청, 주민자치센터, 부평도서관, 인동초등학교, 여성문화회관 등 80개 기관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설문 조사지를 실시,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과 관련된 문서는 사례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쓰였다. 양적 연구를 주된 방법으로 사용되었으며 일부 면담에 참여한 기관은 부평구 평생학습도시 팀장을 대상으로 2009년도에 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한 경험과 연계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정리하였다.

<표 3> 사회 네트워크 설문 조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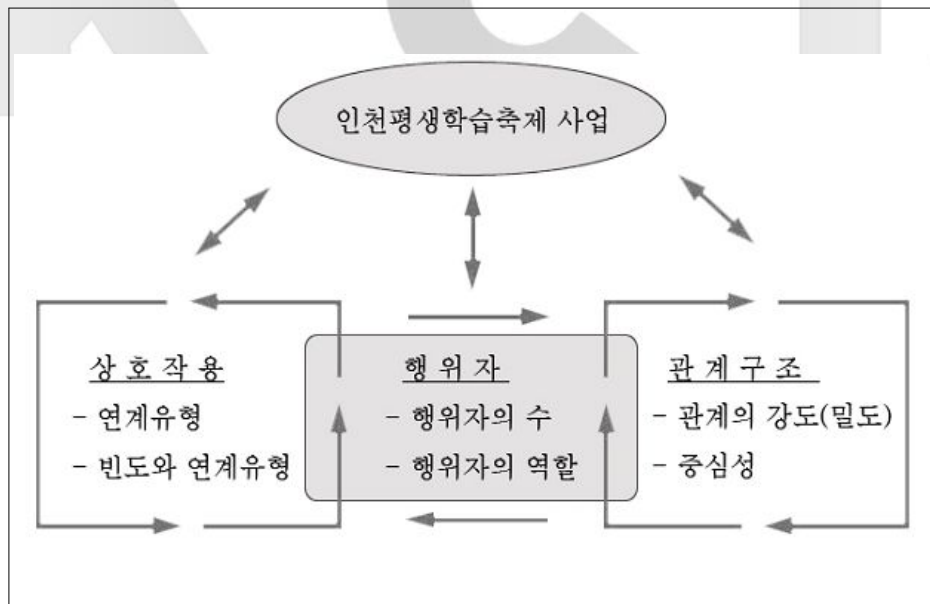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① 평생교육진흥원 담당 연구원 1명 ② 평생학습관(지정20개 기관) 사업 담당 직원 각1명 ③ 평생교육기관(59개기관) 사업 담당 직원 각1명
설문지	80개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조사
조사시기	2009년 7월 13일 - 2009년 7월 30일
조사내용	평생학습축제 사업 관련 기관간의 연락 및 접촉 - 공식적 발신(문서발송, 통지, 보고, 제출등), 비공식적 수신(문서수신, 질의 요청, 자문등), 비공식(협의, 조정, 자문) - 조사내용 : 네트워크 관련 정보송신, 정보수신, 협의 및 조정, 자문 등과 연계된 관계유무, 연락 및 접촉의 빈도

2. 분석틀 설정

네트워크는 개별적인 구성요소들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의 특성, 네트워크의 특성을 통해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이우권, 1997). 즉 네트워크 분석은 관계를 형성하는 원인이 무엇이든

그리고 분석단위가 개별 행위자이든 조직이든 간에 그들 단위에서 형성된 관계로부터 시작된다. 네트워크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와 이들 관계들 간의 연계로 나타나는 전체적인 네트워크 양상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트워크 분석의 기본요소는 바로 그 구성요소 혹은 분석 단위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현된 ‘관계’가 되며, 관계들의 형태나 규칙적인 패턴으로서의 ‘구조’가 분석의 초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김용학, 1992). 지금까지 네트워크 이론과 여러 연구자들이 제시한 네트워크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핵심적인 구성요소는 행위자, 행위자간의 상호작용 네트워크 연계구조를 공통분모로 추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상의 상호작용 관계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모든 구성요소를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분석의 실현가능성 및 연구의 적합성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 추출한 주요 공통변수들을 중심으로 행위자, 상호작용과 관계구조를 중심으로 연구의 틀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호작용적 특성은 네트워크 참여기관수와 유형, 네트워크의 지속성, 행위자 간 역할 분담 내용의 변수들로 구성하였고, 구조적 특성으로는 행위자 간 연계 방향성, 네트워크의 근접성, 네트워크의 확장 등의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또한, 지역평생교육추진체제가 추진과정 속에서 누가 주요 행위자이며, 행위자간 상호작용과 관계구조를 통해 어떻게 네트워크가 작동하였는가를 실제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면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분석틀

따라서 본 연구는 네트워크의 분석요소로서 크게 외적요인, 내적요인, 결과산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내적요인을 중심으로 <표 4>와 같이 분석변수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인 요인으로서 네트워크 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행위자는 누구이며, 상호작용은 어떻게 변화되었고 관계구조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통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네트워크의 내부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네트워크의 구성요소로서 네트워크에 참여한 행위자,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과 관계구조 등의 변수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4> 분석변수 및 분석내용

구분	분석 변수		분석 내용	측정방법
구 성 요 소	네트워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 인천평생학습축제 사업 	내부 문서, 네트워크조사지
	주요 행위자	행위자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트워크에 참여한 행위자의 수 - 기관, 단체, 시설 등의 참여기관 수 	내부 문서
		행위자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트워크에 참여한 행위자간 역할의 내용 - 네트워크 참여 기관 간의 업무 역할 분담내용 	내부 문서
	상호 작용	연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트워크에 참여한 행위자의 연계 유형 - 핵심기관, 주변 기관 간의 연계 유형 경계측면: 수평적, 수직적(위계적) 성격측면: 협력적, 갈등적, 경쟁적, 보완적 	내부문서
		빈도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락과 접촉의 빈도(공식적, 비공식적 포함) - 기관 간 공식적, 비공식적, 협의 및 조정 빈도 연계의 내용 - 기관 간 상호 연계 내용 	네트워크 조사지 분석, 내부문서
	관계 구조	관계의 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의 밀도: 관계의 활발성 측정 - 실제 관계를 맺고 있는 정도 	내부 문서, 네트워크 조사지를 기초로 SNA 분석
중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심성: 네트워크에 참여한 행위자간 중심성 순위와 행위자 간의 영향력 측정 - 연결정도 중심성 - 매개중심성 	내부 문서, 네트워크 조사지를 기초로 SNA분석	

가. 주요 행위자

행위자의 수는 네트워크에 참여한 총 참여기관의 수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각각의 네트워크 사업을 통하여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의 참여기관들의 수는 네트워크의 크기(규모)를 결정해 줄 수 있다. 또한 행위자의 역할은 네트워크에 참여한 기관 간 역할 분담의 내용이 무엇

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사업에 참여한 행위자들의 속성을 분석할 수 있어 어느 기관이 주도하는 기관이며 어느 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지를 규명하였다. 축제 사업에 참여한 핵심기관과, 주변기관들의 네트워크 성격과 역할 규모를 파악하였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다양한 연계 행위자는 인천시교육청, 평생교육진흥원, 교육과학기술부,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평생학습도시, 각급학교, 비영리민간기관, 시설, 단체 등을 꼽을 수 있었다. 사업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참여한 연계 행위자들이 어떻게 네트워크 흐름이 가는지 가늠해 보았다.

나. 상호작용

네트워크에 참여한 행위자들의 핵심기관과 주변기관 간의 연계유형을 살펴봄으로써(김준기 외, 2006: 93-94), 이를 통해 어떠한 사업이 누가 왜, 어떻게 주도하였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계의 경계측면에서 수평적인 경우는 비교적 네트워크 경계가 열려 있어서 참여기관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상태를 말한다. 수직적(위계적)인 상태는 네트워크 경계가 뚜렷하여 참여기관 행위자가 자유롭게 진입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거나 계층적 상하구조로 연결된 상태를 말한다. 다음 연계의 성격측면에서 4가지로 구분하여 보았다. 연계의 성격이 협력적 관계인가는 관련 참여기관들이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 우호적, 촉진적 관계를 맺는 경우를 말한다. 갈등적 관계는 행위자들이 서로 대립하고 상호간 이익을 추구하는 상호작용을 말한다. 경쟁적 관계는 기관들 간에 서로 경쟁관계이면서 극단의 대립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보완적인 관계는 협력과 갈등의 중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개방적, 수평적 네트워크는 참여 행위자 수의 증가와 유형의 다양화, 제도적 장치, 자원의 보유 정도 등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위계적 관계에 있는 기관들은 수직적 연계구조이며, 자원의 교환을 통해 동등한 위치에서 의견을 주고받은 연계유형은 수평적 연계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이들 행위자 간의 빈도와 연계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각 사업에 참여한 기관들 간의 호혜성을 측정할 수 있다. 행위자들의 일정기간 동안 네트워크 활동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구조화된 조사도구를 통하여 참여한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환내용, 관계의 양(연락 및 접촉의 빈도) 등 기관간 상호작용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연락 및 접촉의 빈도는 정보의 송수신, 질의, 요청, 협의 및 조정, 자문 등을 통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 관계 구조

관계구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2가지 분석변수로서 밀도, 중심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관계의 강도는 실제 기관들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밀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기관들 모두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제로 참여 기관들이 얼마나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어 주는 비율을 파악하였다. 밀도가 높다는 것은 다양한 행위자 간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김용학, 2004: 93). 네트워크의 강도는 밀도와 연결시켜 볼 때 밀도가 높을수록 행위자 사이의 연결이 강해지며 높은 신뢰를 나타낸다(손동원, 2008). 밀도가 낮을수록 기관 간의 연결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밀도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행위자들을 연계할 수 있는 연결가능한 수에 대한 실제 연결된 수에 대한 비율이다(김용학, 2008: 40).

둘째, 중심성 분석하였다. 네트워크에서 중심조직 즉 허브를 찾아내기 위해 중심성 분석을 수행하였다(Wasserman & Faust, 1994: 215). 특히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을 통해 각 네트워크의 허브를 찾고자 하였다. 연결정도 중심성은 네트워크 중심성 척도의 하나로서 한 노드(행위자)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의 합이다. 이 연결정도 중심성도 네트워크의 방향에 따라 내향중심성과 외향중심성으로 구분되는데 내향중심성은 관계의 방향이 기관 쪽으로 들어오는 정도이고, 외향중심성은 반대로 그 관계의 방향이 외부로 나가는 정도를 나타낸다. 내향중심성이 높을 경우 다른 기관들로부터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외향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다른 행위자에게 나가는 정보의 양이 많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매개중심성은 특정 기관이 다른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얼마나 중개자 혹은 매개자적 역할을 수행했느냐를 보는 것이다. 매개중심성은 기관 간 네트워크에서 기관들 간 자원흐름의 중간에 위치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기관 간 관계의 특성을 밝히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손동원, 2008). 따라서 네트워크에 참여한 행위자들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한 정도를 나타내는 중심성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심기관이 어느 기관인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결정도 중심성 순위와 매개중심성 순위도 이차적으로 고려하여 중심성 순위와 중심조직을 분석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조사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현상 이면에 존재하는 조건과 동인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사례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사례 연구방법은 독특한 특성을 가진 개인, 집단, 프로그램 등 소수사례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사례연구는 주로 분석대상이 하나 또는 소수로 제한되며, 질적연구를 통해 심층적, 다층적, 집중적 연구전략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남궁근, 1998).

실제 네트워크에 연계 기관 간 상호작용과 관계구조를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

하여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네트워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고안된 분석프로그램인 NetMiner 3을 이용하여 행위자들의 관계로 나타나는 지역평생교육추진체제 네트워크 상호관계와 연계구조를 분석하였다.

사회 네트워크 분석은 관계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⁵⁾ 관계데이터는 관계를 형성하는 한 쌍 사이에 발생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 데이터는 한 사람의 속성과는 분명히 다르며, 또 동일한 사람도 그 사람이 누구와 관계를 가지는가에 따라 다른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다. 관계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설문지, 직접관찰, 실험, 문헌정보 등에 의한 방법이 있다(손동원, 2008: 40-42).⁶⁾ 따라서 본 연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위하여 분석 방법인 사례 연구 방법과 양적분석방법인 사회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⁷⁾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구성요소 분석 및 논의

가. 주요 행위자

각 사업의 네트워크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심 참여자가 누구이고 이들 기관들은 어떠한 사업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어떠한 기관들이 참여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요 행위자의 수와 역할을 알면 네트워크의 성격과 규모가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된 분

5) 사회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모집단에 근거한 표본조사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연결망 분석의 주요 관심사항은 행위자 개인 내재적 특성이 아닌 행위자간 또는 조직간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Hanneman, 2001; 박치성, 2006).

6) 각 수집방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설문지 방법은 선정된 응답자들로 하여금 준비된 설문 항목을 응답하게 하는 방법이다. 둘째, 직접관찰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의 관계를 직접 관찰하는 방법이다. 셋째, 실험은 연구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구성된 실험실을 연구대상에게 제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문헌정보에 의한 네트워크 자료 수집 방법은 설문지, 직접관찰, 실험 등의 자료 수집방법과 달리 다른 사람들이 이미 여러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들을 목적에 따라 추출하는 방법이다. 공인된 기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경우이며, 이 경우 자료의 신뢰도는 높다.

7) 일반적으로 양적연구는 사회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대상의 속성에 숫자를 부여하여 자료를 수집하며, 그 자료를 분석하는데 기술통계와 추리통계라는 통계분석기법을 사용한다. 반면에 질적 연구는 자료가 숫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형태로 수집되며, 자료를 주제와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두 연구방법은 연구 스타일과 자료수집 및 분석기법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 기본적인 논리는 본질적으로 같다. 이는 바로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특정의 현상에 대한 과학적 추론, 기술적 추론과 인과적 추론을 추구하는 것이다(남궁근, 1998: 66-73).

석의 대상인 인천평생학습축제를 중심으로 주요 행위자를 분석하였다.

인천평생학습축제는 학습의 즐거움과 학습결과를 나누고,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을 위하여 2001년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평생학습축제는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평생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른 시·도보다 북구도서관은 지역주민 대상 평생학습축제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앞서 개최한 경험이 많은 기관이었다.

먼저 평생학습축제 사업의 행위자의 수를 알아보면, 주요 참여기관은 부평구청, 연수구청,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남부교육청 등 56개 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NGO)는 21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평생학습축제사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요 행위자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부평구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연수구청, 남구청, 남부교육청, 연수도서관, 동구청소년수련관, 연수문화원, 인천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이었다.

<표 5> 네트워크 참여 기관 현황

사업별	네트워크 참여 기관			
	주체기관	연계기관	관련 참여기관	
			공공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평생학습축제 개최	지역평생교육 정보센터 & 부평구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남구청, 연수구청,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등 56개 기관	연수문화원, 인천 남구 여 성인력개발 등 21개 기관

출처: 인천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2009), 내부 공문서 자료 재정리.

기관간의 역할을 살펴보면, 평생학습축제의 주체기관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부평구 평생학습도시였다. 이들 기관들은 계획 수립단계 전부터 사전에 기관 간 의견을 수용하여 다양한 역할분담을 미리 정하여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갈등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수차례 거쳤다. 평생학습축제는 네트워킹의 연속이자 그 산물이었다.

평생학습축제는 2001년도부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진행하였고, 부평구는 2005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함께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후 인천평생학습축제는 학습도시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축제를 주관하고 있다(문정수, 이희수, 2008). 2009년에는 연수구청에 이어 부평구청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는 동일한 사업을 각자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점에 공감하였기 때문이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부평구청은 공동 계획 수립을 추진하였고 개막식은 부평구청이, 폐막식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주관하였다. 또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경우 각종 경연대회, 특별 기획전시를 주관하였으며 초청장, 포스터, 브로셔 제작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부평구청은 평생학습기관

홍보관 설치, 작품전시회,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 현수막 게시 등의 업무를 분담하였다.

연계기관인 인천시교육청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관련 교육기관들에게 평생학습축제에 대한 홍보 안내를 하였으며, 학교별 홍보포스터를 배포·부착하였다. 또한 학교별·기관별 평생학습축제 참여를 유도하였다.

<표 6> 네트워크 협력기관 역할분담 비교

구분	협력기관		역할분담
평생학습 축제개최	주체기관	지역평생 교육정보센터	공동계획수립(폐막식주관), 각종 경연대회: 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 최고의 명강사를 찾아라, 문해백일장대회, 이주여성 편지쓰기, 특별기획전시 꿈의정원, 함께 떠나는 동화속으로, 3D 입체영화버스, 버블메직 퍼포먼스 / 초장장, 포스터, 브로셔 제작 등 3,800부 / 학교 학생 동원 협조 공문발송
		부평구 학습도시	공동계획(개막식주관)수립, 평생학습홍보관: 80개관, 평생학습종합작품전시회, 부평구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홍보용 현수막 게시, 부평청소년 창작영화제 개최 등
	연계기관	인천시교육청	평생학습축제 홍보(각급학교, 평생교육기관) 및 의전, 경연대회 각종 포상 담당

출처 : 인천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2009), 내부 공문서 자료 재정리.

이상 종합해 보면, 평생학습축제 네트워크에 참여했던 행위자의 수는 총 80개 기관이었다. 주요 행위자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부평구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으로는 남구청, 연구구청 등 56개 기관이, 민간기관으로는 연수문화원, 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또한 행위자들 간 역할분담의 관계는 주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부평구청이 공동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주체 기관간에 공동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사전에 참여기관 간 의견을 함께 수용하고, 역할분담을 통해 경쟁 관계보다는 상호 연계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선행연구에서 Rhodes와 Marsh(1992)가 주장했던 정책공동체보다는 본 연구에서는 이슈 네트워크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행위자의 수가 달라지면 관계는 변화하며, 개별 행위자간의 관계 유형이 변화하면서 전체의 네트워크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의 차이점은 행위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장기간에 걸쳐 일부 주요행위자가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활동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상호작용

기관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연계 유형과 빈도 등을 분석변수로 선정하였다. 연계유

형은 핵심기관과 주변기관간의 연계 유형을 분석하고 행위자간의 연락과 접촉의 빈도 등을 측정지표로 하였다.

평생학습축제 네트워크의 연계유형은 주체 기관 간 수평적인 형태를 특징으로 한다. 이같이 평생학습축제는 기관간 연계,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네트워크 사업이다. 특히 담당자간의 업무 연계 관계를 형성하면 관련 업무가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다. 네트워크가 원활히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연계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속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해가 거듭할수록 평생학습축제 사업의 참여기관과 참여자 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2001년도부터 개최되어 2010년 현재까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연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데 있다. 그 가운데 상호작용이 증진되었음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축제를 공동 주관으로 하다 보니 행사 규모가 커져서 도움이 되었어요. 일단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러 행사에 분산되지 않고 집중될 수 있어서, 기관에서 보면 행사가 크고, 단일 사업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갈등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사업이 어느 쪽으로 편중되면 민감한 반응이 좀 있지요. 행사 의전관계나 행사별로 중요도에 있어서 기관 간에 좀 신경전이 있지요. 근데요. 자주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다보니 그들 입장과 우리 입장이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구요. (부평구 평생학습도시 L담당자)

연계의 경계측면은 주체기관 간 상호 수평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계의 성격은 주체기관 간 다소 경쟁적인 부분도 내포하고 있지만 연계의 방향은 협력적이며 보완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관간 네트워크 상호작용의 빈도와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상호작용의 빈도는 접촉 빈도로서 얼마나 자주 기관 간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가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평생학습축제 참여자의 상호작용 중 공식적, 비공식적 연락과 접촉의 빈도를 살펴보고 기관 간 상호 연계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식적 발신빈도와 공식적 수신빈도, 비공식적 빈도 등 3가지 상호작용 빈도를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공식적 발신빈도의 경우, 총 6,320건 중에서 매우 자주(3.0)는 78건이고, 보통(2.0)은 135건, 가끔(1.0)은 114건이고, 거의 없는 경우(0.0)는 5,993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식적 수신빈도로서 총 6,480건 중에서 매우 자주(3.0)는 74건이고, 보통(2.0)은 136건, 가끔(1.0)은 117건이고, 거의 없는 경우(0.0)는 6,15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비공식적 빈도는 총 8,556건 중에서 매우 자주(3.0)는 36건이고, 보통(2.0)은 105건, 가끔(1.0)은 108건이고, 거의 없는 경우(0.0)는 8,307건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기관간 네트워크 상호작용의 빈도가 매우 낮은 편이어서 일정한 기관을 제외하곤 네트워크의 정도와 중요성에 따라, 참여기관이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편이었다. 이와 같이 나타난 결과는 2007년도부터 운번제로 선정지가 바뀌어서 개최되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평생학습도시에 관련된 기관들이 새로이 영입되고, 그 지역에 해당하는 평생교육 기관들이 대거 참여했기 때문에 전체 네트워크 상호작용의 빈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참여기관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사업의 목표와 사업내용에 대하여 참여기관 간 충분한 협의나, 사업공유가 이루어 질 때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가 쉽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 상호작용의 빈도

구분	상호작용의 빈도		
	공식적 발신빈도	공식적 수신빈도	비공식적 빈도
0.0(거의없음)	5,993	6,153	8,307
1.0(가끔)	114	117	108
2.0(보통)	135	136	105
3.0(매우 자주)	78	74	36
계	6,320	6,480	8,556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교환되는 자원의 양은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내부문서, 각종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네트워크의 자원이 교환되는 횟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사업에 최초 접촉한 기관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이다. 또한, 자원 교환의 양을 살펴보면 수신건수보다 발신건수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평생학습축제 사업에 다양한 홍보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평생교육기관들과 잦은 접촉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신건수보다 발신건수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로 외부 수신건수가 많은 기관을 보면, 교육청 소속기관인 학교가 가장 많았고, 비영리 민간단체 등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관 등에서 수신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들은 학습동아리, 각종 대회 행사에 따른 학생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표 8> 상호 연계 자원의 교환 현황

사업명	최초시작일	최초접촉기관	발신건수	외부 수신 건수								총계
				중앙정부	시교육청	학습도시	학습관·도서관	평생교육기관	학교	기타	소계	
평생학습축제 개최	01년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281 (57%)	0 (0%)	6 (1%)	38 (8%)	16 (3%)	47 (9%)	96 (19%)	11 (2%)	215 (43%)	496

출처: 인천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2009). 내부 공문서 자료 재정리.

이상 네트워크에 참여한 기관들간의 연계유형을 정리해 보면, 행위자간의 상호 유대관계가 사업계획 시부터 주체기관과 연계기관이 수평적으로 공동 사업으로 인식하였다. 사전에 연계기관 간 의견을 함께 수용하고 동시에 역할 분담을 통해 기관들과의 경쟁 관계보다는 상호 시너지 효과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연계 협력 사업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 또한 행위자간 연계 유형은 강한 연결보다는 약한 연결로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접촉빈도는 전체적으로 낮은 편(4.4%)이었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교환되는 네트워크 자원의 양을 분석한 결과 수신건수보다 발신건수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의 상호 연계성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경우 내향성보다는 외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상호작용은 관계를 맺고 있는 행위자 간의 수에 기초하여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고 그 행위자의 위치와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Wasserman & Faust, 1994: 205). 기존 선행연구 Granovetter(1973)에서 지적하였듯이 약한 연결은 강한 연결보다 서로 다른 행위자들을 연계하고, 사회 시스템에서 서로 연계되지 않은 부분을 연결하며, 새로운 정보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결과 접촉빈도는 평생학습축제 사업이 41%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약한 연결로 연계되었음을 의미한다. 약한 연결은 연결되지 않은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되어 정보와 자원을 확산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다. 관계구조

관계구조는 네트워크에 참여한 행위자간의 관계구조를 말한다. 주요 내용으로 관계의 강도와 중심성을 통해 나타난 특성과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 중심을 둔다. 먼저 관계의 강도는 행위자간 관계의 활발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실제 관계를 맺고 있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공식적 발신 관계와 빈도, 공식적 수신관계와 빈도, 비공식적 관계와 빈도 등을 대상으로 각각 밀도를 측정하였다. 행위자간 네트워크 활동에서의 중심성은 중심성 지수를 무엇으로 파악하

느냐에 따라 행위자간 관계에서의 중심성과 영향력의 관계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하는 기관간의 강도를 측정하였다. 사회 네트워크 분석에서 밀도가 의미하는 것은 방향성을 의미하기보다는 각 기관들이 네트워크 전체에서 연결 가능한 경로 대비 실제 연결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계를 맺는 정도를 비율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표 9>에서 보듯이, 평생학습축제 네트워크 기관간의 관계 네트워크 밀도를 크게 관계와 빈도 2가지로 각각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먼저 공식적 발신관계가 4.7%, 수신관계 4.2%, 비공식적 관계 3.4%로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이 중 공식적 발신관계가 4.7%로 다소 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공식적 발신빈도는 5.2%, 공식적 수신빈도는 5%, 비공식적 빈도는 2.9%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공식적 발신빈도가 활발하였으며, 반면 비공식적 빈도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공공기관이 평생학습축제를 추진할 때 협의, 조정 등 비공식적 관계보다는 직접 공문서가 수발신되는 공식적인 관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 빈도가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밀도는 모든 관계에 대하여 실제로 이루어진 관계의 비율로 산출되며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다. 전체적으로 평생학습축제 네트워크의 밀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을 제외한 네트워크 활동이 전반적으로 낮은 밀도를 보여준다. 네트워크의 밀도가 낮다는 것은 네트워크 내의 구성요소간 정보교류 등 상호작용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 구성요소에 대한 평판이 매우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전체의 규범에 따를 가능성이 낮은 편임을 의미한다.

<표 9> 네트워크 밀도

구분	밀도		
	공식적 발신	공식적 수신	비공식적
관계	0.047	0.042	0.034
빈도	0.052	0.05	0.029

다음으로 중심성 분석은 네트워크에 참여한 행위자간 중심성 순위를 알아보는 것과 동시에 행위자간의 영향력을 알아보는 데 중점을 둔다. 중심성은 주요 분석변수로서 연결정도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등을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평생학습축제 참여기관들 간 네트워크에서 중심기관을 파악하기 위해 연결정도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을 조사하였다. 연결정도 중심성은 특정 행위자와 연결된 행위자들 수의 총합으로 산출되며 지역적 중심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는 관계를 맺은 인접한 행위자의 수에 기초하여 산출되므로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와 관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데 행위자의 위치와 중요도를 파악하는 기본개념이다(Wasserman & Faust, 1994: 215). 이 지표가 높은 행위자는 많은 다른 행위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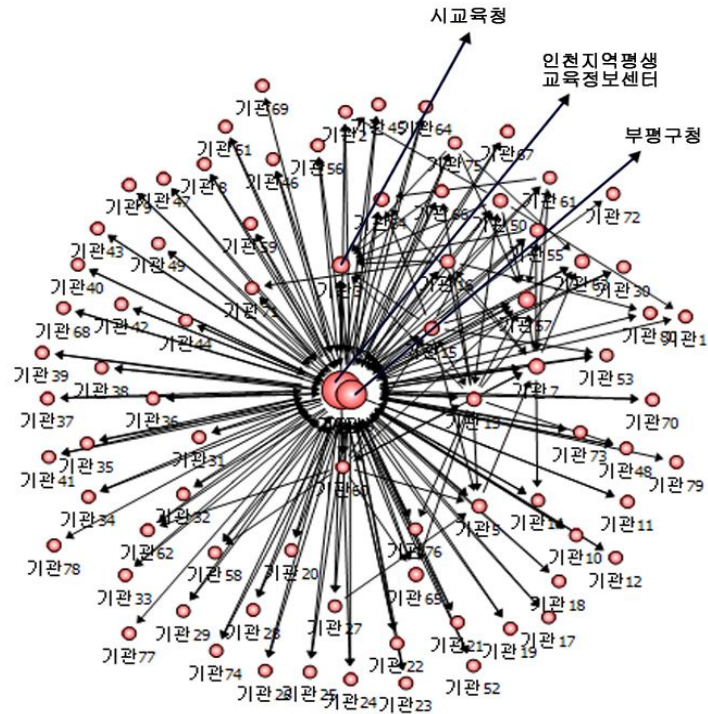
면 낮은 행위자는 관계구조 속에서 적은 수의 행위자와 관계하며 네트워크 주변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생학습축제 네트워크에 참여한 기관은 총 80개 기관으로 이중 공식적 발신관계에서 연결 정도 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은 기관은 기관4인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였다. 공식적 수신관계에서 연결중심성 중 내향중심성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외향중심성은 부평구청이 가장 높았으며, 매개중심성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가장 높았다. 비공식 관계에서 연결중심성도 마찬가지로 내향중심성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외향중심성은 부평구청이, 매개중심성은 부평구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내향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교환되는 자원의 양이 참여기관들로부터 수신되는 자원의 건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행사 주체기관으로 행정적인 부분과 재정적인 부분에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로부터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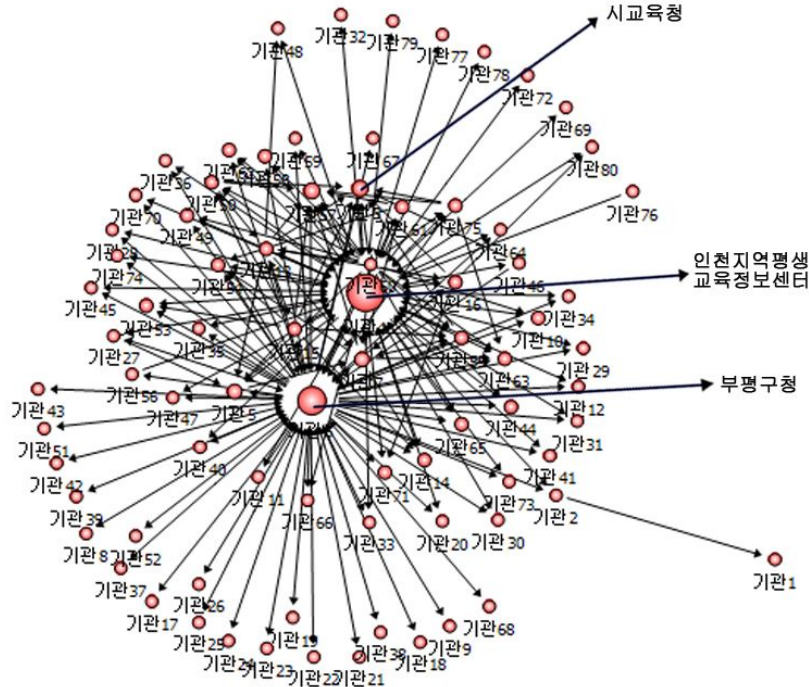
한편, [그림 2]와 같이 공식적 발신관계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여 분석한 결과, 기관간 접촉하여 네트워크 활동에서 가장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기관4)로 전체 80개 중 53개 네트워크의 연결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은 부평구청(기관6)이 37개의 연결수를 가지고 있었다.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기관4)가 60%이고, 부평구청(기관6)이 37%를 차지하고 있었다. 내향중심성 면에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기관4), 부평구청(기관6), 시교육청(기관3), 인천시평생학습관(기관57), 연수구청(기관7) 등 공공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외향중심성 측면에서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기관4), 부평구청(기관6), 남부교육청(기관13) 등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동구청소년수련관(기관15),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기관50) 등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중심성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외향 중심성보다 내향 중심성이 다소 높은데 이는 다른 기관들로부터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은 네트워크의 주도적인 역할과 정보의 높은 통제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공식적 발신관계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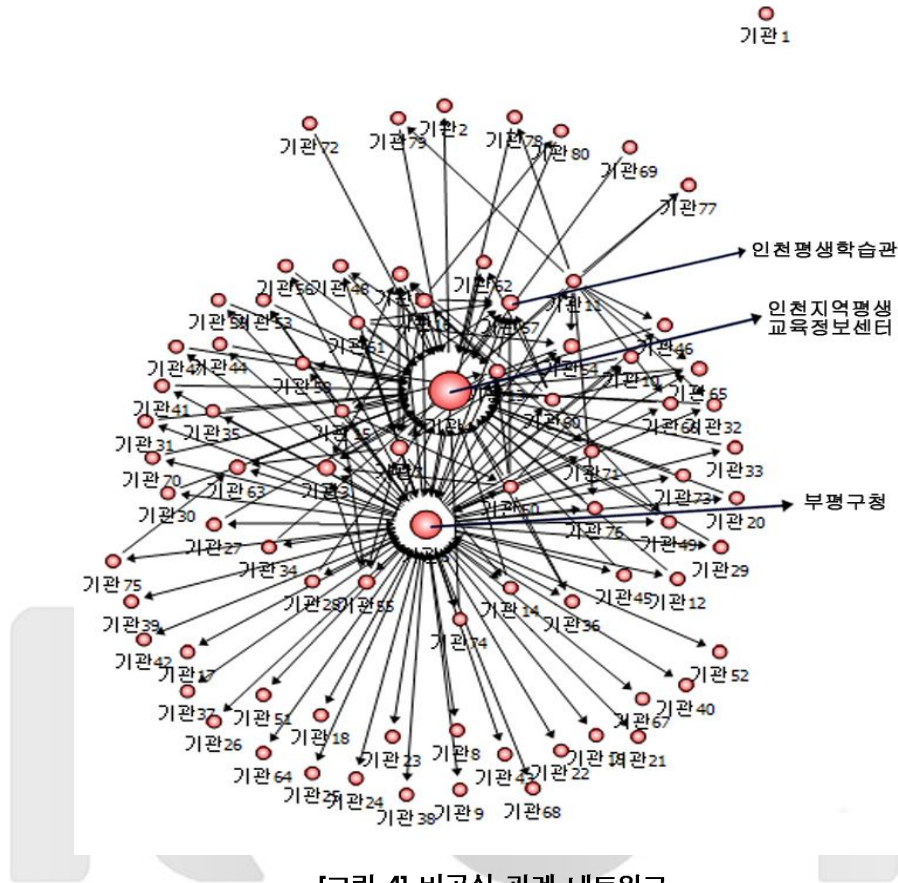
공식적 수신관계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여 분석한 결과, [그림 3]과 같이 네트워크 활동에서 가장 중심적 역할과 매개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공식적 발신관계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기관4, 55개의 연결수)와 부평구청(기관6, 37개의 연결수)이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내향중심성 면에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부평구청 다음으로는 시교육청(기관3),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기관57), 연수구청(기관7), 남구청(기관5)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외향중심성 측면에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부평구청 다음으로는 인천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기관60), 동구청초년수련관(기관15), 연수구청(기관7), 남부교육청(기관13) 순으로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내향중심성보다 중심성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보다 비영리민간단체들이 평생학습축제를 통하여 기관 사업의 홍보와 인식을 보다 확산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3] 공식적 수신관계 네트워크

비공식 관계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여 분석한 결과, [그림 4]와 같이 기관간 접촉하여 네트워크 활동에서 가장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기관4)로 전체 80개 중 54개 네트워크의 연결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은 부평구청(기관6)이 33개의 연결수를 가지고 있었다.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부평구청(기관6)이 90%이고,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기관4)가 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적 관계의 경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보다 부평구청이 보다 더 매개적 위치에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부평구청은 참가하는 기관들에게 재원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주로 집행 사항에 대한 내용, 운영사항, 축제 부스의 사이즈, 위치 등 축제 행사에 참가하는 문의사항들에 대한 활발한 연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내향 중심성 면에서 주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기관4), 부평구청(기관6), 인천시평생학습관(기관57), 시교육청(기관3), 연수구청(기관7) 등 주로 공공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외향 중심성 측면에서는 부평구청(기관6),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기관4), 계양도서관(기관11), 남부교육청(기관13) 등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동구청소년수련관(기관15),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기관50) 등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중심성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네트워크에 참여한 기관들간의 관계구조를 통하여 관계의 강도(밀도)와 중심성 순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논의점을 정리하였다.

전체 네트워크 행위자간 강도(밀도)는 낮은 편(4.5%)이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부평구청과는 상호 긴밀하게 연계·집중되어 되어 있었다. 또한 중심성을 측정한 결과 연결정도중심성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부평구청이 가장 높았으며, 매개중심성도 마찬가지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부평구청이 매개 기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총 80개 기관 중 활발한 관계를 맺고 있는 행위자들이 일부 소수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중심성은 참여 기관들간의 연계가 특정기관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Ibarra(1995)는 네트워크 밀도를 통해 네트워크에 참여한 기관간 관계의 응집정도라고 제시하면서 네트워크 밀도가 높으면 기관간의 협력과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강도와 밀도 대비 중심성을 비교해 보면 상당정도 반비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관계구조에 위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네트워크상에서 ‘마당발’ 같은 네트워크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표 10>과 같이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표 10> 네트워크의 분석결과 비교

구분		평생학습축제
주요행위자	행위자의 수	80개 기관
	행위자의 역할	주체기관 : 인천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 부평구청 연계기관 : 인천시교육청
상호작용	연계유형	경계측면 : 다소 수평적 성격측면 : 협력적, 보완적인 요소
	빈도와 내용	빈도 : 낮은 편(4.4%) - 공식적발신빈도 : 5.2% - 공식적수신빈도 : 5% - 비공식적빈도 : 2.9% 내용 : 부평구청과 연계 협력
관계구조	강도	밀도 : 낮은 편(4.1%) - 공식적발신관계 : 4.7% - 공식적수신관계 : 4.2% - 비공식적관계 : 3.4%
	중심성	연결정도중심성 - 공식적발신관계 : 인천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53) - 공식적수신관계 : 부평구청 (66) - 비공식적관계 : 부평구청 (71) 매개중심성 - 공식적발신관계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60%) - 공식적수신관계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59%) - 비공식적관계 : 부평구청 (90%) 중심화 - 내향 중심화 : 63% - 외향 중심화 : 95%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평생교육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운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론으로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상호작용과 관계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네트워크의 내부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사례분석 대상으로서 인천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선정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와 통계자료 분석 그리고 설문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변수들을 선정하여

분석들을 구성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행위자 상호작용과 관계 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계량적 방법인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NetMiner 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각화하였다. 연구문제별로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자의 수와 역할에서 보았듯이 행위자의 수가 달라지면 관계는 변화하며, 개별 행위자간의 관계 유형이 변화하면 전체의 네트워크도 달라질 수 있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행위자들을 살펴보면, 네트워크 사업을 주도했던 핵심 기관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나타났다. 핵심기관은 네트워크를 산출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되어 있어야 하고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따라서 핵심기관은 연계 기관들간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계 협력이 요구되며, 이들의 정당한 합의 사항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관리자로서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으로 연계 유형은 주로 자발적이고 수평적일수록 연계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연계한 행위자간의 네트워크 유형은 단순히 한 가지 유형이 아니라 다소 중복적이면서 다양한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네트워크의 지속성을 위하여 참여기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영향 요인을 찾아냄으로써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때 신뢰는 행위자간의 높은 수준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요인으로 행위자간 상호 신뢰는 갈등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주체기관과 연계 기관들 간에 다양한 참여방식으로 점차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연계 협력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간의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기관간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참여하는 행위자간의 관계구조를 통하여 연계 행위자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았다. 원활한 관계구조를 위해서는 중심조직인 허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허브기관은 네트워크 전체의 질서와 원활하고 신속한 정보교류를 촉진시켜 주는 중요한 존재라는 점이다. 중심 기관과 연계기관간의 갈등관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향후 평생교육기관 간에 사업추진 과정에 초기부터 참여시키고 지속적인 대화와 이해를 구함으로써 행위자간 갈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들과 상호 지속적인 긴밀한 의사소통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 관계구조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경우 외부 수신건수 보다 내부 발신건수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내향 중심보다는 외향 중심성향을 나타냈다. 또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네트워크의 강도(밀도)는 낮은 편이었지만 행위자간의 네트워크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관간 연계를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연계기관간의 네트워크 확장 정도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창구역할로서 지속적으로 관

계를 맺을 때 네트워크의 개방성과 확정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연계기관간 원활한 네트워크를 갖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의사소통 통로를 가능한 많이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동등한 입장에서 네트워크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행위자는 누가 네트워크의 주도권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운영하는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위자간의 의견이 존중되고 있다는 느낌을 서로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네트워크 참여자는 합의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네트워크에서 차지할 참여기관들 각자의 위치, 행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참여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적절히 배분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나친 경쟁, 업무영역의 모호함 또는 중복 등으로 인하여 참여기관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이해 충돌을 사전에 막거나 해결할 수 있는 조정장치가 네트워크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역할은 앞으로 지역평생교육진흥원이 허브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책무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가 적어 합의된 이론적 토대가 약한 점은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제안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네트워크 활동 분석을 기관중심으로 구조적 분석에 치중했다. 향후 네트워크에 참여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구조적 분석과 개인변수를 고려한 인지적 분석을 병행해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평생교육추진체제 관련 행위자 간의 세부적인 심층분석에 있어 자료의 미비, 행위자들 간의 내부적 연계가 표면화되지 않아 연계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내부 역동성에 대한 분석이 다층적,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기관 간의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 전반을 모두 분석하지 않았고, 주요 핵심기관 간의 내부적 요인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사례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네트워크 구성에 따른 사업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는 부족한 점이 있었으며 또한 외부적인 네트워크 환경 요인을 고려하지 않아서 전체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넷째, 연구 방법상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함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분석 변수외의 클러스터 계수, 구조적 등위성, 파당, 핵심-변방(core-periphery) 지수 등의 분석변수를 활용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향후 심층적인 연구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순희, 박성재, 장원섭(2003). 사회학습망 구축방안.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강은숙(2001). 정책변동의 정책네트워크 이론적 분석: 그린벨트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1), 103-125.
- 강창현(2001).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경애, 김정원(2007). 교육지원체제로서 지역네트워크 형성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3(3), 117-142.
- 김경주(2002). 여성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정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 김선경, 양제대, 원준연(2003). 도시계획 결정과정의 정책 네트워크 분석. 행정논총, 41(4), 253-279.
- 김수구(2006). 평생학습도시의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카케가와시의 평생학습도시 구축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28(1), 63-78.
- 김신일(2004).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모형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0(3), 1-30.
- 김옥일(2008). 정책네트워크 변화와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사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김용학(1992). 사회구조와 행위. 서울: 나남출판사.
- 김용학(2004). 사회 연결망 분석. 서울: 박영사.
- 김준기(2006). 한국 사회복지 네트워크의 구성과 효과성.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희연(2002).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분석: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희연, 한인숙(2002). 네트워크 이론에서 본 지역사회 복지 : 지방정부와 사회복지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1), 99-122.
- 남궁근(1998). 비교정책연구 : 방법, 이론, 적용. 서울 : 법문사
- 문정수, 이희수(2008). 인천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네트워크 특성 사례분석. 평생교육학연구, 14(4), 155-183.
- 박용관(1997). 네트워크 조직론 서설. 한국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 논문집. 21(1), 319-340.
- 박치성(2006). 비영리-정부조직간 공식계약관계에 대한 연구: 미국 피츠버그시 사회서비스 공식 계약 연결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4(4), 232-258.
- 방민석(2003). 전자정부 구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정책패러다임의 변동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배응환(2000). 정책네트워크모형의 행정학연구에 적용탐색, 한국행정학연구, 10(3), 258-298.
- 손동원(2008). 사회 네트워크의 분석. 경문사.
- 신영균(2004). 의약분업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유형변화에 관한 연구: 김대중 정부를 중

- 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양병찬(2000). 지역사회 평생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전략.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양병찬(2006). 지역연계협력을 통한 교육안정망 구축. 2006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관계자 연수자료. 경기도교육청.
- 양홍권(2007). 지역사회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인력개발연구, 9(1), 27-40.
- 유병권(2008). 도시계획과정의 정책 네트워크 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이상일(1999).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순호(2000). 노동복지 정책네트워크의 변화: 고용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이우권(1997). 연결망분석을 통한 지역사회 권력 중심성 분석. 현대사회와 행정, 7(1), 199-216.
- 이지혜, 홍숙희(2007). 학습으로서의 네트워킹: 부천시지역 교육안정망 사례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3(3), 215-243.
- 이희수, 백은순, 방명숙(2000).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유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희수, 박인중, 김득영, 문정수(2005). 평생학습 지원 추진기구 혁신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희수(2006). 평생학습도시 발전을 위한 지원시스템 체계화 전략. 제3차 평생교육포럼, 제4차 평생교육정책포럼 연구자료 RM 2006-53. 한국교육개발원.
- 장원섭(2006). 지역평생학습 파트너십의 국내사례분석. 지역평생학습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학습파트너십 구축전략 제4차 평생교육포럼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61-122.
- 정연순(2006). 네트워크로서의 학교: 도시형 대안학교 운영원리의 평생교육적 해석, 평생교육학연구, 12(3), 23-47.
- 조영하(2009). 네트워크 중심 사회적 자본의 정책적 활용성과 교육정책적 함의: 캐나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연구, 16(2), 93-120.
- 한승희(2001). 평생학습과 학습생태계. 서울: 학지사.
- 한승희, 권두승, 김미숙, 정민승, 허준, 김한별(2007). 국가단위 평생교육 추진 전담기구의 통합 구축방안 연구. 인적자원개발 정책연구 보고서, 교육인적자원부.
- 한준상 외(1997). 사회교육기관간 상호 협력 방안 연구. 서울: 교육부.
- 현영섭, 조대연(2009). 학습동아리의 사회적 연결망과 지식공유의 관계 : 관계밀도, 집중화, 지식공유간의 비선형 모형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15(3), 189-122.
- Castells, M.(1996).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Massachusetts: Blackwell Publishers.
- El-Bassel, N., Chen, D. R., & Cooper, D.(1998). Social support and social network profiles among women on methadone. *Social Service Review*, 72(3), 379-401.
- Granovetter, M. S.(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Hanneman, R. A.(2001). *Introduction to social network methods*. Unpublished on-line textbook.
- Ibarra, H.(1995). Race, opportunity, and diversity in social circles in managerial network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 673-703.
- Illich, I.(1984). *탈학교사회*(황성모 역). 서울: 삼성미술문화재단.(원저 1971 출판)
- Isreal, B. A., & Rounds, K. A.(1987). Social network and social suport. In William B. Ward(ed.). *Advances In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Greenwich*: JAI Press, 235-239.
- Jordon, G., & Schubert, K.(1989). A Preliminary ordering of policy network label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21, 324-335
- Knoke, D., & Kuliniski, J.(1992). *Network analysis: basic concept*, Ber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Marsh, D., & Rhodes, R. A. W.(1992). *Policy networks in British gover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itchell, J. C.(1996). *The concept use of social networks*. In Mitchell, C.(ed.), *Social networks in urban situations*, Manchester: Manchester Press.
- OECD(2003). *Network of innovation: towards new models for managing schools and systems*. Paris: OECD.
- Storberg-Walker, J., & Gubbins, C.(2007). Social networks as a conceptual and empirical tool to understand and do HRD.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9(3), 291-311.
- Van De Ven, A., Ferry, D. L., & Van De, A. H.(1980). *Measuring & assessing organizations*. A Wiley Interscience Pub.
- Waarden, F. V.(1992). Dimensions and type of policy networks. *European Journal of Plitical Research*, 21, 29-52.
- Wasserman, S., & Faust, K.(1994). *Social network analysis : methods and applic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tts, D. J.(2003). *Small World*(강수정 역). 서울: 세종연구원.(원저 1999 출판)
- Wellman, B.(1988). *Structural analysis: from method and metaphor to theory and substance*. In Wellman, B. & Berkowitz, S. D.(eds.), *Social structures; A network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isahi, Y.(1992). From on iron triangle to an iron duet? health policy making in Israel.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21, 87-113.

- 논문접수 2010년 9월 30일 / 수정본 접수 2010년 11월 4일(1차), 11월 15일(2차) / 게재확정일 2010년 11월 20일
- 문정수 : 중앙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인천광역시 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에 재직 중임.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네트워크분석, 평생교육, 인력개발, 직업교육 등임.
- 이희수 : 중앙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및 글로벌 인적자원개발대학원 원장으로 재직 중임. 주요 관심분야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NHRD, RHRD, 평생교육 등임.

K C I

Abstract

A Study on the Social Network of Local Information Center for Lifelong Education : Focusing on Incheon Local Lifelong Learning Festival

Moon, Jung-soo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Lee, Hee-su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was initiated with the investigator's critical mind of 'who, why and how' had influence upo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network of local lifelong education system. In this ve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tensively examine who were the participants in the network, focusing on Local Information Center for Lifelong Education, and then empirically look into the interaction and relation structure between participants and the network, focusing on the internal process of the network. For this, the investigator established an analytic frame of three components, such as main participants, interaction and relation structure, focusing on the actual case of Incheon Local Lifelong Learning Festival Project. In order to examine data, the investigator used the NetMiner 3 program and visualized the relation structure of participants.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ost of main participants in the network were public agencies; second, the pattern of interactional linkage of participants was a little horizontal, cooperative and supplementary, and the frequency of interaction was low (4.4%); and third, the strength of relation structure was weak in general (the rate of density was 4.1%) and the results of measurement of centrality showed that Local Information Center for Lifelong Education occupied higher positions in general. Study findings can provide suggestions to groping after the direction of effective network operation of Local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in the future.

[Key Word] Local lifelong education system, Actors, Interaction, Relation structure, Social network analysis.